

군공항 이전 반대 활동 세금 17억원 쓴 무안군

2019~2022 집행 예산 분석

현수막·물품·광고비 등 사용
소모성 경비에 효과 의문

무안군이 2019년 '군 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4년간 군민 월세 17억7000여만 원을 광주 군 공항 이전 저지에 배정, 홍보 비용으로 집중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무안군은 이 기간 실제로 광고비, 홍보물·홍보 물품·홍보영상 제작, 현수막·배너 등에 13억1000여만원의 예산을 썼으며, 집행률은 73.82%에 그쳤다.

또 광주 전주비행장 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 매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1억원씩 지원했으나, 대책위의 예산 집행 내역도 무안군이 직접 집행한 내역과 중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집행 내역 중 컨설팅, 홍보 차량 임대 및 구입 역시 그 필요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등 관련 예산이 모두 소모성 경비로 사용됐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일보가 무안군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안군은 군 공항 이전 저지를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군이 직접 13억7502만원, 범대위 4억원 등 모두 17억7502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17억7502만원 가운데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13억1023만원(집행률 73.82%)이었다.

무안군과 범대위의 집행 예산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광고비였다. 신문, 방송 광고에 3억

829만원(23.52%)을 썼다. 다음이 홍보물과 홍보 물품 제작으로 2억6859만원(20.4%)였다. 물병, 부채, 물티슈, 손소독제, 파스, 핫팩, 장바구니, 장갑 등을 한 번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수차례 구매했다.

홍보 장비 및 차량 임차·홍보 차량 구매 및 제작 등에 1억6007만원, 홍보 영상도 매년 2760만원에서 4300만원을 들여 제작하면서 모두 1억4495만 원을 사용했다.

또 무안읍, 남악신도시 등 무안군 곳곳에 현수막·배너를 제작해 설치하는데 1억1148만원을 썼다.

2020년에는 대응 전략 수립 컨설팅 명목으로 7980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무안군과 범대위는 주민 강사 및 SNS 서포터즈 활동비 명목으로 4년간 9068만원, 3명의 여비 명목으로 2547만원을 썼다. 군 공항에 따른 소음 피해를 직접 주민들에게 느끼게 하기 위한 현장 견학에는 1451만원을 사용하는데 그쳤다.

무안군과 범대위가 집행한 내역은 거의 중복됐으며, 범대위는 항의 방문, 결의대회, 성명서 발표, 축제장 부스 운영 등을 수행했다는 점만 차이가 있었다.

'군 공항 무안 이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만큼 이러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무안군이 반대 여론에만 편승해 (과거) 편향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공익감사에서 이러한 예산 배정과 집행이 정당할 것인지, 제대로 집행한 것인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한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0일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장성군 진원면의 한 복숭아 농가의 복숭아 나무 가지들이 강한 바람에 부러졌다. 농가 주인이 복숭아 열매를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농작물 침수·낙과...태풍 '카눈' 피해 속출

광주·전남 주민 1000여명 대피
2400여 세대 정전으로 큰 불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에서는 농작물 침수, 헛간 파손 등 농축산업과 관련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고 정전·교통 통제·주민 대피 등으로 지역민들의 불편도 이어졌다.

〈관련기사 6면〉

광주와 전남에서는 1000여명의 주민들이 대피하고, 2400여 세대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구와 남구, 광산구에서 14세대 주민 23명이 마을회관이나 친인척 집 등으로 사전 대피했다. 강풍에 흔들린 나무가 전깃줄과 접촉하면서 정전도 잇달았다.

광주 서구 금호동 6개 아파트단지 3198세대 전력 공급이 이날 오전 4시 40분부터 오전 5시 27분까지 끊겼다.

광주 도심 하천 전구간의 출입구 131곳과 둔치 주차장 11곳 등도 출입이 차단됐다. 광주에서는 7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고, 21개 학교가 등교시간 조정을 했다. 169개 학교는 방과후 수업을 중단했다.

전남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동반하면서 광주보다

피해가 컸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은 광양 백운산 227.5mm, 구례 성삼재 204.5mm, 여수 돌산 151.5mm, 광양 146.9mm, 구례 145.5mm, 담양 105.3mm, 여수 102.7mm 등을 기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고흥·여수·광양·순천지역은 206ha의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고흥지역의 벼 쓰러짐 피해(185ha)가 가장 컸고 여수(화양·소라면 4ha), 광양(진월면·광양읍 4ha), 순천(해룡면 13ha) 등에서도 벼 쓰러짐 피해가 발생했다.

곡성에서는 주택 옆 헛간 지붕이 주저앉았고 배농사에서 낙과(석곡면 1ha), 옥수수(삼기면 1ha) 피해가 발생했다.

정전 피해도 발생, 화순에서는 주택 등 214세대가 정전됐고 광주에서도 금호동 일대 아파트단지 3198세대 전력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겼다.

산사태나 범람 등이 우려되면서 전남지역 19개 시·군 712세대 948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전남도소방본부는 토사 낙석, 도로 장애, 간판 추락 등으로 인한 31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

태풍 특보가 발효되면서 이날 22개 시·군 57개 해수욕장, 76개 산책로, 19개 둔치주차장, 28개 야영장 등의 이용이 통제됐고 3개 도로 통행도 제

한됐다. 항공기는 광주공항 7편, 여수공항 4편, 무안공항 2편 등이 사전 결항했으며, 전남 국내 섬을 잇는 여객선 53개 항로 83척 전체가 운항을 일시 중단했다.

열차편도 고속철도 호남선 52편 가운데 36편, 전라선 30편 가운데 13편이 운행을 중단했다.

이번 태풍으로 전국적으로는 대구에서 사망 1명, 실종 1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 의심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제 6호 태풍 '카눈'은 10일 오후 충청도를 지나 수도권 등 중부지방으로 북진하며 광주·전남 지역은 사실상 카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됐다.

기상청은 10일 "11일 새벽 시속 21km 속도로 북한에 진입해 이날 오후 한반도를 벗어날 전망이다"고 밝혔다.

태풍의 영향으로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최고기온 29~31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주말인 12일 아침최저기온은 21~24도, 낮최고기온 29~32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지속됐던 열대야와 폭염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서울 잼버리 K팝 공연 입장 때 경찰·소방 인력 배치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 예정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슈퍼라이브 공연을 관람하려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3시간 30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장한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잼버리 일일 브리핑에서 "대원들은 약 1000대 이상의 버스 1대당 전담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속도부터 경기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한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원들은 엄밀한 시간 계획에 따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순차적으로 입장하며,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동선을 관리한다"라고 설명했다. 오후 5시 30분부터 30분간 폐영식이 진행된 이후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가 열린다.

관람석은 객석 3만7000석 외에 그라운드 좌석 6000석이 배치돼 총 4만3000석이 준비됐다.

/연합뉴스

'로도 수감신청?' 대학생들 거러 성행 ▶7면

복스 - '거의 모든 순간의 미술사' ▶14·15면

KIA '불편의 소금' 김유신 짚물 피칭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EQE SUV

누구도 예상 못한 아우라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4MATIC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3.9(도상: 4, 고속도로: 3.7) 1회 충전거리(km) : 404, 공차중량(kg) : 2540, 배터리 용량(kWh) : 88.4
· EQE 500 4MATIC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3.8(도상: 3.9, 고속도로: 3.6) 1회 충전거리(km) : 401, 공차중량(kg) : 2510, 배터리 용량(kWh) :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출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